

신화로 풀어낸 영어 탄생 뒷이야기

‘상식과 교양으로 읽는 영어이야기’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어릴 적 화학실에서 종종 봤던 ♂와 ♀는 어디서 유래했을까?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기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내용은 좀 복잡하다. ♂와♀는 천문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행성을 나타내기 위해 썼던 기호였다. ♂는 창과 방패를 의미하는 기호로, 전쟁의 신 ‘아레스’(화성)를 상징하고 있고, ♀는 손잡이 달린 거울을 본뜬 기호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금성)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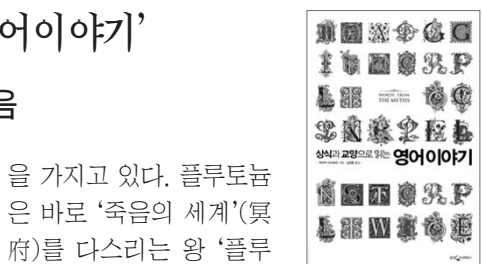
아이작 아시모프(1920~1992년)가 쓴 교양 에세이 ‘상식과 교양으로 읽는 영어이야기’는 우리는 물론 서양인도 상식이라고 잘못 알고 있던 오류들을 바로잡아주는 한편, 그 뒤에 숨은 색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인 아시모프는 러시아 태생의 미국 작가로 과학소설과 교양과학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20대 초반에 작가로 데뷔해 1992년 사망할 때까지 과학소설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작품들을 발표하며 아서 클라크, 로버트 하인라인과 함께 SF계의 ‘3대 거장’ 중 하나로 꼽힌다.

책은 이런 인문학적 감성을 가진 아시모프가 자신의 박식함을 유감없이 드러낸 독특한 작품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최근 일본의 지진과 원전 사고 덕분에 부쩍 언급이 잦은 ‘플루토늄’이라는 단어가 있다. 사람들은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로 그저 좋지 않은 것쯤으로 생각할 뿐 그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

플루토늄은 사실 그 느낌에 딱 어울리는 어원



을 가지고 있다. 플루토늄은 바로 ‘죽음의 세계’(冥府)를 다스리는 왕 ‘플루토’(Pluto·그리스명 하데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나왔다.(영어로 Pluto를 ‘명왕성’으로 번역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바로 이 저승의 왕 플루토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핵무기를 만드는 죽음의 재(Plutonium)로 부활하게 된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처럼 책은 사이렌(siren)과 화산(volcano) 등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잘 모르는 어휘에서부터, ‘apple of discord’(사람들이나 집단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와 ‘to

cleanse the Augean stables’(쌓인 부패를 일소하다) 등 영어권에도 낯선 고급 표현까지, 다양한 영어의 기원들을 신화 이야기로 재미있게 녹여내고 있다.

별자리나 스타벅스, 인류의 달 착륙에 관한 이야기 등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들 속에 숨은 신화 이야기를 영어 표현을 통해 새롭게 일깨워준다.

책은 천문학·물리학 등 과학은 물론 역사와 신화 종교까지 방대한 지식을 다루는 인문 교양 서이지만 딱딱하지 않고 쉽게 읽힌다.

중간 중간 삽입한 삽화와 용어 설명 또한 친절하며 읽어갈수록 저절로 쌓이는 지적유쾌에 미소짓게 하는 책이다. 원서 ‘Words from the Myths’(Houghton Mifflin Company·1961)

〈웅진지식하우스·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밀회 장면. 아프로디테는 남편 파이스토스의 눈을 피해 아레스와 자주 밀회를 즐겼다. 니콜라스 푸생의 1628년 작(미국 보스턴 피인 아트 박물관 소장)이다.

자본주의 문명에 숨어 있는 야수성과 잔혹성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

박범신 지음

‘영원한 청년 작가’로 불리는 박범신(65)의 신작 장편소설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가 출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재했던 것으로 작가생활 39년째를 맞는 그의 서른 아홉 번째 장편이다.

‘홀았처럼 늙다’ ‘겨울 강 하나바람’ 등 여러 소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폭력이라는 소재를 다뤄 온 그가 이번에는 자본주의 문명 이면에 숨어 있는 폭력성에 주목했다.

소설의 주요 무대는 ‘상그리라’라는 5층짜리 원형 건물이다. 교도소에서 출소해 노숙자로 떠돌던 주인공 ‘나’는 이 건물의 관리인으로 고용된 뒤 비밀스러운 공



간에서 기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상그리라에 사는 인물과 그들이 벌이는 행태는 자본주의 문명의 야수성과 잔혹성을 드러낸다. 나는 이사장의 비정한 행각을 접하고 잔인함을 깨달아가면서 기이한 일을 겪는다. 손바닥에 숨었던 ‘말굽’이 모습을 드러내고 견잡을 수 없이 자라나 끔찍한 살인을 잇따라 저지른다.

이본 소설은 올 여름 교수직을 떠나며 소설가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작가의 변신인 것 보인다.

여섯 달간 치열하게 매달려 집필한 소설인 만큼 이번 작품은 박범신 소설 특유의 흡입력과 앞으로 새롭게 펼쳐나가게 될 또 다른 문화적 권력의 예고 같은 변화들을 만날 수 있다.

〈문예중앙·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노벨상 두 번 받은 라이너스 폴링의 삶

‘라이너스 폴링 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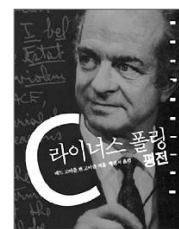
테드 고어홀 지음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1901년 태어난 라이너스 폴링은 25세에 캘리포니아공대(칼텍)에서 물리·화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30세에는 세계 최고의 화학자로 명성을 떨쳤다.

‘라이너스 폴링 평전’은 세계 최초로 노벨화학상과 노벨평화상을 동시에 수상한 미국 과학자 겸 사회운동가 라이너스 폴링(1901~1994년)에 대한 평전이다.

미국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폴링은 20대에 양자물리학을 분자 연구에 응용하면서 세계적인 과학자의 반열에 올랐고 1939년에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화학 저서 중 하나로 꼽히는 ‘화학결합의 본질’을 출간했다.

또 냉전시대 핵무기의 광풍 속에서도 평화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반핵 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솔직히 말한다 해서 처벌받았다면 과학은 발전할 수 없다”며 전 세계 과학자들의 핵실험 금지 청원 서명을 받기도 했다.

또 말년에는 의학으로 관심을 돌려, 비타민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비타민C 케페인’을 발명했다. 1994년 그가 사망하자 빌 클린턴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지칠 줄 모르는 행동으로 이 세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든 사람”이라 추모했다.

이 책은 이러한 화려한 이력을 가진 폴링의 삶을 재구성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킨다.

〈실천문학사·2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국 공군 장군의 한국전쟁 참전 일기

‘한국전쟁 일기’

윌리엄 T. 와이블러드 지음

미군 장군이 한국전쟁을 기록한 일기 중 현재까지 전해지는 단 3권 가운데 하나인 조지 E. 스트레이트마이어의 참전 일기가 ‘한국전쟁 일기’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다.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규모로 옮겨진 이 책에는 스트레이트마이어의 일기뿐만 아니라 그가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을 비롯한 군의 수뇌부들과 주고받은 비밀전문 등도 담겨 있다.

그날그날의 전세(戰勢)나 작전상황을 상세하게 담은 이 기록은 미군 사령관의 입장에서 한국전쟁 초기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책을 엮은 전쟁사가 윌리엄 T. 와이블러드는 “한국에서 스트레이트마이어는 적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미 육군과 해군, 그리고 언론과도 전쟁을 벌였다”고 밝힌다.

실제로 그의 일기 속에는 극동군 사령관이자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이 세운 작전, 문제점, 그리고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담겨 있으며 한국전쟁 동안 미국 각 군의 막후 활동과 언론 홍보 활동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한국전쟁 발발 61주년을 맞아 ‘육·해·공 3군의 합동성 강화’가 우리 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군 전략 참고서로서도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

〈플래티미디어·3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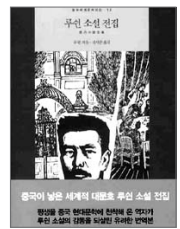
중국의 성인 루쉰의 문학과 사상

‘...루쉰 문학 선집’

루쉰 지음

위대한 사상가·혁명가로 중국의 성인으로 불리는 루쉰(1881~1936년)의 문학 세계를 한 권으로 묶은 ‘한 권으로 읽는 루쉰 문학 선집’이 출간됐다. 루쉰의 수많은 저작 중에 소설집 ‘남향’ ‘방황’을 제외하고 가려 뽑아 1권 5책(잡문, 수필집, 서한집, 양지서, 고사신편)에 담았다.

작품 선정 기준은 그의 저작 가운데 널리 읽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



는 글과 대학생, 지식인의 비판적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글들을 중심으로 뽑았다.

여기에 박홍규 영남대 교수가 방대한 루쉰 문학과 사상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해제를 쓰고, 지금 시대에 루쉰 문학을 읽어야 하는 사회학적 의미를 밝혔다.

루쉰의 생애를 연도별로 상세하게 적은 ‘루쉰 연보’도 실었다.

〈고인돌·3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으로 보는 세계 전쟁의 역사

‘...20세기 전쟁사’

던컨 힐 지음

20세기 들어 세계 곳곳을 피로 물들였던 전쟁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집 ‘사진으로 기록된 20세기 전쟁사’가 출간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사진과 기사를 바탕으로 1914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전쟁사를 담은 책이다.

1914년 발발해 약 8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시작해 2008년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까지 지난 한 세기 동안 일어난 거의 모든



내전과 국지전, 세계대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다. 올해로 발발 61주년을 맞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사진도 볼 수 있다.

미군에게 생포돼 심문을 받고 있는 옛된 얼굴의 북한군 소년병 사진이나 자기 키보다 큰 무기를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전쟁고아의 사진은 전쟁의 비극을 선명하게 전하고 있다.

〈시그마북스·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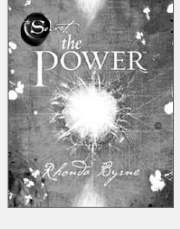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간

▲어디 아픈데 없나고 당신이 물었다=‘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인가’ 등의 시집을 낸 김선우 시인이 나그네로써의 모습이 가장 행복한 곳, 오로빌을 다녀와서 쓴 여행 에세이다. 인도 남부 코르만델 해안의 오로빌은 인도 사자가 스리 오로빈도의 신념에 따라 1968년 세워진 공동체 도시로 40여 개 국 2000명이 모여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는 곳이다. 시인은 오로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소소하지만 충만한 행복을 전한다. 〈청림출판·1만3000원〉

▲서양 우화집=카프카, 구르몽, 페로, 라퐁텐 등 서양의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지은 우화와 여러 나라의 전래 우화를 한곳에 모았다. 아이들과 함께 읽어볼만한 60편의 서양우화, 이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의 세계는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이 분명 무엇인가를 친절히 일깨우고 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의지와 도리, 참된 세상살이의 덕목과 교훈 등 지혜로움의 길로 안내한다. 〈하늘연못·1만2000원〉

▲파워=자기계발서 ‘시크릿’ 열풍을 몰고 왔던 호주 작가 론다 번의 신작. ‘시크릿’을 통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시했다면 이번 책에서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에 대해 다룬다. 삶을 일순간에 변화시키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갖기 위한 본질적인 힘인 ‘파워’에 대해 이야기한다. 〈살림Biz·1만3000원〉



▲침대=‘페스트’의 작가 최수철(53)씨가 6년 만에 내는 신작 장편소설. 한 그루의 자작나무가 침대로 만들어진 뒤 국경을 넘나들며 새 주인들을 만나고, 그 주인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담았다. 시베리아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침대가 겪는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삶과 역사를 들여다본다. 1895년 러일전쟁에서부터 한국전쟁 등 역사적 배경이 환상적 이야기들과 뒤엉킨다. 〈문학과학지성사·1만4000원〉

▲안도 다다오의 도시 방향=일본의 유명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인문학적 건축 여행기. 10대 시절부터 동경했던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을 보려고 찾았던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동경했으나 가보지 못한 카슈미르까지 1965년부터 1992년까지 작가에게 영감을 줬던 여행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여행으로 자신이 극복한 세계의 경험을 진지하게 전달한다. 〈오픈하우스·2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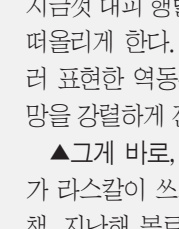
▲손정의 세계를 로고인하다=제일동포 기업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짧은 시절 이야기를 각 분야 명사인 네 명의 지인으로부터 들어왔다. 샤프의 고문인 사사키 다다시, 경영학자인 노다 가자오 일본종합연구소 회장, 구미다 히로미쓰 도라노분원원 분원장, 오쿠보 히데오 일본도쿄상공회의소 특별고문이자 자신이 만난 무명시절의 손정의를 회상한다. 〈현문미디어·1만5000원〉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작가의 동화 원작 ‘마당을 나온 암탉’을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다시 그림책으로 출간됐다. 암탉을 낳지 못하는 암탉 ‘일쌍이’가 오리를 자식처럼 키운 뒤 더 넓은 세계로 떠나보내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화려한 색채의 애니메이션이 그려진 그림과 시적인 글로 아름답게 그려졌다. 〈시계질·1만500원〉

▲완두콩=‘아주 특별한 우리 형’ ‘가방 들어주는 아이’의 고정욱(51) 작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며 인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가의 어린 때 이름인 ‘동구’를 주인공으로 ‘완두콩 동구-자기 존중하기’ ‘제일 못생긴 공주님-자기 소질 키우기’ 등 일곱 편의 이야기 속에 일곱 가지 인생 덕목을 담았다. 〈상수리·9800원〉

▲우리 역사가 담긴 8가지 우표 이야기=우표들을 발행된 시대별로 살펴보면, 각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당시 중요하게 여겼던 정책, 주된 가치관 등을 알 수 있다. 우표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운다. 6·25 한국전쟁 기념우표, 독립운동가 우표 등 각 시대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과 행사를 담은 실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어린이작가정신·9500원〉

▲아픈 바다=일러스트레이터 엄정원씨의 첫 그림책. 아이들의 시선으로 충격적인 환경 재앙을 바라본다. 죽어 가는 검은 바다와 섬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방사능 유희를

지금껏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후쿠시마를 떠올리게 한다. 목탄을 짓기듯 손으로 문질러 표현한 역동적인 바다는 아이의 슬픔과 절망을 강렬하게 전달한다. 〈느림보·1만1000원〉

▲그게 바로, 너야=벨기에의 아동문학 작가 라스칼이 쓰고 만다나 사드트가 그린 그림책. 지난해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호평과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다.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얘기하면서 깊은 사랑을 전한다. 아이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해준다. 〈여우고개·1만원〉

어린이 책꽂이